

잠 못 드는 나날들

(『긴긴밤』을 읽고)

이율리

요즘 긴긴밤을 보내고 있다. 나는 여태까지 13년 인생 동안 항상 ‘자신감 넘치게’ 살아왔다. 하고 싶은 것은 하루 전에 베풀치기를 해서라도 다 이뤄 왔고,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의 부러움을 산 적도 있다. 남들이 “이건 좀 아니지 않아? 이것까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.” 하는 것도 모두 성취해, 결과적으로 지금 1학기 반장에다가 방 송부까지 하고 있다.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나지만, 요즘 고민이 많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없이 도전을 하고 살 것인가? 도전하고 떨어졌을 때의 그 창피함도 내가 무릅쓰고 잘 생활할 수 있을까? 남들은 부담스럽다고,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까지 다 하며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하며 요즘 긴긴밤을 보내는 것 같다.

이야기 『긴긴밤』의 주인공인 코뿔소 노먼도 그랬을 것 같다. 노먼이 눈을 떠 보니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 코에 둘러싸여 있었다. 그곳에서 그는 코뿔소가 아닌 코끼리처럼 자랐다. 그곳은 먹여 주고, 재워 주고, 재밌는 코끼리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

은 곳이었다.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오자, 노먼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야생으로 나갔다. 노먼이 야생으로 나간 것은 어쩌면 큰 실수이자 행운이었다. 노먼은 깨달은 것이다.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은 자신이지, 코끼리 고아원의 나이 많은 코끼리들과 사육사들이 아니라는 것을.

노먼은 처음 코끼리 고아원에서 나오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? 하나로 정의해 보긴 힘들 것 같지만, 두려움에 맞설 용기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, 이렇게 둘 아니었을까? 노먼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. 남들이 단지 힘들다는 이유로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을 노먼은 선택했다. 노먼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. 목표가 있었기에 노먼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쉬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.

나는 수없는 도전을 하고 살아왔지만, 지금은 딱히 목표가 없다.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다. 내년이면 중학생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든다. 심지어 나는 그 누구보다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, 목표 없이 인정만 받고 싶어 한다는 게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.

심지어 요즘은 많은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좋은 평도 받고 있어서인지, 더더욱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하느라 밤이 길어지고 있다. 그 사람들은 나처럼 도전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평을 자꾸 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나는 그 평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. 난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. 그런 사람들의 평이 내 귀에

들어올 때마다, ‘내가 너무 어리석었나? 생각해 보니 이렇게까지 열심히, 열정적으로 살아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?’ 이런 생각도 든다. 그럴 때마다 지인들이 따뜻한 조언을 해 주었다. 그들은 내가 꼭 1등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,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주었는데 이 말은 내 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고 안 좋은 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부러워서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다.

긴긴밤 고민하는 동안 ‘이게 과연 맞는 건가?’라고 의심을 많이 했지만, 이 책을 읽고 생각이 확고해졌다. 난 노먼처럼 힘들더라도 계속 도전해 볼 거다. 생각보다 어렵더라도,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신경 쓰이더라도 나는 나니까, 나는 나로 살아야 하니까,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.